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4. 13.(목) 11:00 < 4.14.(금) 조간 > 배포 2023. 4. 13.(목)

탄산수급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 탄산 수요가 증가하는 4월 ~ 9월을 탄산수급 대책기간으로 운영

- 선박 수주량 증가 및 여름철 높은 기온으로 탄산 수요량 증가 전망

- 공장 증설, 점검(모니터링), 협의체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4.13.(목)부터 9월 말까지 탄산 수급 대책기간으로 지정하여 탄산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여름철 탄산 공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 산업부는 4.13.(목) 양기욱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업계·협단체와 탄산수급 관리 간담회를 개최하여 탄산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였다.

올해 조선업계의 선박 수주량이 늘어나면서 선박 제조에 사용되는 용접용 탄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름철 기온도 평년보다 높은 것으로 전망되어 신선식품 택배사업에 이용되는 드라이아이스의 수요도 증가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석유화학협회에 따르면 5~8월 탄산 생산량은 수요보다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4월 2개 업체, 9월 3개 업체의 정기보수가 진행될 예정으로 탄산원료의 생산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여 탄산 수급이 불안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산업부는 당초 5월부터 운영될 예정인 탄산수급 대책기간을 20일 정도 앞당겨 4월 13일~9월을 탄산수급 대책기간으로 지정하였다.

산업부는 탄산공급 부족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정유·석유화학사의 정기보수 일정을 사전에 공유하고, 기업들의 협조하에 일정을 분산·조정하여 정기보수 일정이 특정 기간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또한, 일부 업체들은 탄산원료를 공급하는 공장을 증설하였고 올해 가동할 계획이다. 증설된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면 탄산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책 기간동안 산업부는 탄산수급 전담기관인 한국석유화학협회를 중심으로 탄산원료 공급현황과 탄산 생산량을 격주 간격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하였다. 모니터링 과정 중에서 탄산 수급이 불안해질 우려가 있으면 기업·협단체들과 협의하여 긴급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작년 11월에 발족했던 탄산 공급·수요 협단체 간 얼라이언스를 바탕으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탄산 수급과 관련하여 업계의 애로사항이 발생할 시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로 매년 탄산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였는데, 올해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탄산수급 대책기간을 지정하고 지속적인 현황 점검을 통해 탄산 공급이 부족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아울러, 탄산 외에 다른 산업가스도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현황을 점검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끝으로 “산업부는 국내 공급망의 불안정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간담회 개요 >

▲ **일정** : ’23. 4. 13.(목), 15:00~16:00

▲ **참석자** : **산업부 양기욱 산업공급망정책관,** 석유화학사, 탄산제조사, 탄산가스 충전업체,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주요 내용** : ① 올해 탄산수급 현황 점검
② 탄산수급 대책기간 운영방안 논의

담당 부서	산업공급망정책관 화학산업팀	책임자	팀 장	강규형 (044-203-4930)
		담당자	사무관	김민성 (044-203-493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